

# 三焦有形說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 有關三焦有形說之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尹暢烈

本人就三焦有形說进行了研究，得出如下之结论。

自『難經』提出三焦有名無形說以來，其影响頗大，致使三焦無形說成為韓醫學界的主流。但是，若對『難經』之理論根源『內經』所論及之三焦之意义进行一番考察，則可知三焦是具有一定部位，經脈，表裡關係，生理功能，病理症以及与之相应的外部組織的，它与其他五臟六腑相比并无异处，所以当將三焦看做有形之腑才是。

纵观歷代三焦有形之說，有宋代陳無擇最早主張三焦有形之說，提出右腎下脂膜便是三焦，明代虞搏提出腔子脂膜說，張介賓提出包羅諸藏大囊說，但以上見解皆與三焦實體相距甚遠。到了清代，唐宗海提出人身內外脂膜說，葉霖提出腹包膜及藏府鄧郭說，其主張與內經所說之三焦之實體相比，可以說是相當精確的。到了民國時代，張錫純繼承了唐宗海之油膜說，論證了『內經』所說之三焦即是網油，還對內外網膜說及三焦部位說进行了補充。由此可見，三焦有形說萌芽於宋代，發展於明代，成熟於清代，經民國張錫純之深化期，終於显现其本來面目。

綜合以上諸家之見解，作者認為狹義之三焦相當於腹膜及由腹膜發出而來包裹腹腔諸臟器的大網膜和小網膜，廣義之三焦則包括心包和胸膜，更進一步還包括全身筋膜等人體的所有膜性組織。如此認識三焦，不僅與『內經』之有形說相符，而且還能對上焦宣布精氣，中焦腐熟水穀及化生氣血津液，下焦分別清濁及排泄二便的生理功能进行合理的闡釋。

**关键词：**三焦，三焦有形說，油膜說，網油，網膜

## I. 緒 論

《難經》의 25難과 38難에서 三焦를 “有名而無形”이라 하고 脈訣에서 이를 이어 “三焦無狀空有名”이라 한 이래 孫思邈 王冰, 李東垣, 滑壽, 李梴 등 대부분의 의가들은 三焦無形說을 인습하여 生理 病理를 설명하였고 《中藏經》도 역시 無形說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內經》에서 이미 六腑의 하나라고 하면서 “孤腑” “中瀆之腑”라 일컬었고 手少陽三焦經의 經脈이 나오고 다른 臟腑와 마찬가지로 表裡配合關係가 있음을 살펴볼 때 形體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素問》과 《靈樞》에 있는 여러 문장을 살펴보더라도 實質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傷寒》과 《金匱》에서 三焦의 形狀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難經》에서 無形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여 이후 三焦에 대한 진실이 가려지게 되었다.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ey@dju.ac.kr, Tel : 042-280-2601  
접수일(2011년 11월 2일), 수정일(2011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2011년 11월 22일)

景岳이 말한 것처럼 “대저 명칭은 형체로부터 나오는데 만약 정말로 명칭만 있고 형태가 없다면 내경의 말은 허공을 판 것이(夫名從形立이어늘 若果有名無形이면 則內經之言은 爲鑿空矣리라)”<sup>1)</sup> 될 것이며 모든 機能은 有形으로부터 來源함으로 정말 無形이라면 “主持諸氣”하여 全身의 氣機와 氣化를 주관하고 “通調水道”하여 水液運行的 道路가 되는 삼초의 기능이 나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宋代 이후부터 三焦有形說이 대두되어 여러 醫家들이 《內經》에서 말한 三焦의 형태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筆者는 《內經》에 나타난 三焦有形에 관한 내용과 歷代 三焦有形說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三焦有形說中 비교적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葉霖의 《難經正義》說 및 唐宗海와 張錫純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여 三焦有形과 有形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키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本 論

### 1. 內經에 나타난 三焦有形說

《素問》「靈蘭秘典論」에서 “三焦者是 決瀆之官이니 水道出焉하니라”고 하였고 《靈樞》「本輸」에서는 “三焦者是 中瀆之腑也니 水道出焉이오 屬膀胱하니 是孤之腑也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瀆은 물이 흐르는 도랑으로 決瀆은 물이 흘러가도록 도랑을 터놓는다는 뜻이고 中瀆은 가운데 물이 흐르는 도랑이란 뜻으로 이 두 구절은 水道出焉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만약 三焦가 無形이라면 決瀆之官이 되어 水道가 出焉하고 中瀆之腑가 되어 水道가 出焉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三焦를 孤腑라고 더더욱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六節藏象論」에서는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是 倉廩之本이니 營之居也오 名曰 器라” 하였고 「五藏別論」에서는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是 天氣之所生也니 其氣象天이라 故瀉而不藏하고 此受五藏濁氣하니 名曰傳化之府라” 하였다.

器는 물건을 담은 그릇으로써 有形的인 것이다. 여기서 三焦를 기타 有腔장기와 함께 언급하면서 이들을 모두 器라고 한 것으로 보아 三焦는 有形的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이 비어 무엇인가를 담거나 싸고 있는 장기임을 추측할 수가 있다. 또한 三焦를 胃, 大腸, 小腸, 膀胱 등과 같이 六腑의 하나로 언급하고 傳化之府라고 한 것에서도 無形이 아닌 有形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靈樞》「本藏」에서는 “腎合三焦膀胱하니 腠理毫毛其應이라” 하고 구체적으로 “密理厚皮者是 三焦膀胱이 厚하고 粗理薄皮者是 三焦膀胱이 薄하고 疏腠理者是 三焦膀胱이 緩하고 皮急而無毫毛者是 三焦膀胱이 急하고 毫毛美而粗者是 三焦膀胱이 直하고 稀毫毛者是 三焦膀胱이 結也라” 하였는데 三焦에서 厚薄과 緩急과 直結을 分別할 수 있다면 實物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다. 《靈樞》「經脈」을 보면 三焦經의 流走를 기술하면서 散絡心包하고 循屬三焦한다고 하였고 表裡가 되는 心包經의 流走에서는 出屬心包絡하고 歷絡三焦한다고 하였다. 十二經脈은 모두 臟腑에 根源을 두고 經脈이 뻗어 나오는데 三焦가 無形이라면 三焦經脈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三焦經이 循屬三焦하고 心包絡이 歷絡三焦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靈樞》「論勇」에서는 “勇士者是 目深以固하며 長衡直揚하며 三焦理橫이라” “怯士者是 目大而減하며 陰陽相失하며 其焦理縱이라” 하였다. 여기에서도 만약 三焦가 無形이라면 三焦에 對應하는 腠理가 橫하다거나 縱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내경에서 말한 臟腑는 확정된 부위가 있고 상응하는 經脈이 있고 表裡관계가 있으며 생리적인 기능, 병리적인 病證 그리고 外部에 相應하는 組織이 있는데 내경중의 삼초도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三焦病者是 腹脹氣滿하며 小腹尤堅하며 不得小便하야 窘急하니 溢則爲水하고 留卽爲脹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삼초의 기능장애는 水道不利 및 水液內停의 病證이 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도 三焦有形과 實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三焦를 처음 언급한 《內經》에서는 三焦를 분명히 有形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434.

## 2. 歷代의 三焦有形說

宋代에 이르러 徐通과 陳無擇이 三焦有形說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래 明, 淸을 거쳐 民國時代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三焦有形說과 그 실체를 설명하였지만 초기에는 本旨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고 淸代 后期에서 民國時代에 이르러서는 거의 實體에 접근하였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三焦有形說의 萌芽期 宋代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四川의 醫家 單驥과 石守道の 사위 徐通이 三焦有形說에 관한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陳無擇이 이를 종합하여 기술한 듯하다.

먼저 單驥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부터 왼쪽 신장은 상합하는 부가 방광이고 오른쪽 신장이 명문은 상합하는 부가 삼초니 남자는 精을 갈무리하고 여자는 자궁에 메어있다. 이치로 추리해 보면 삼초는 마땅히 방광과 같은 것이니 볼 수 있는 형질이 있다. 그러므로 갈무리 할 수 있고 어디에 메일수가 있는 것이다. 삼초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삼초는 인체에 분포함에 상중하의 다름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맑아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精氣가 삼초에 흠어져 온몸을 榮華롭게 하지만 욕정이 한번 일어나 心火가 타오르면 삼초의 정기를 모아 명문으로 들여보내 瀉出케 함으로 이 腑를 삼초라 불렀을 따름이다. 왕숙화가 삼초는 장기는 있지만 형체가 없다 했는데 또한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sup>2)</sup> 이어서 徐通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른쪽 신장아래에 손바닥크기만한 脂膜이 있는데 바로 방광과 마주하고 두 개의 흰 脈이 그 가운데서 나와 척추를 끼고 올라가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導引家들이 말한 挾脊雙關인 것 같은데 脂膜이 손바닥크기 만한 것이 三焦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선양의 말은 내가 본바와 합치되니 古人들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sup>3)</sup> 이상의 두 내용은 모두 《龍川略志》를 인용해서 《苕溪漁隱叢話》에 실려 있다.

2)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841.

3)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78.

陳言의 《三因極一病証方論》에 있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古人들이 左腎은 신장이니 그 腑는 방광이고 右腎은 명문이니 그 腑는 삼초가 된다고 하였다. 삼초는 손바닥크기만한 脂膜이 있는 것이니 바로 방광과 마주하고 두 개의 흰 脈이 그 가운데서 나와 척추를 끼고 올라가 뇌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난경에서 남자는 精을 갈무리하고 여자는 자궁에 메어있다고 하였다. 이치로써 추리해 보건대 삼초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볼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것이 옳다. 편작이 이치로써 ‘삼초는 자리는 있지만 형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 뜻은 상초는 如霧하고 중초는 如漚하고 하초는 如瀆하여 두루 볼 수가 없다고 여겨서 有位無形이라고 한 것이다. 왕숙화 등의 무리가 그 본지를 잃어버리고 드디어 無狀空有名이라 해서 후배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잘못을 계승하게 했다. 또한 명칭이란 사실을 명명한 것이니 실상이 없는데 어떻게 명칭을 붙일 수 있는가. 정말로 형태가 없다면 어떻게 精을 갈무리하며 자궁에 메어있을 수가 있는가. 이른바 삼초는 무엇인가. 상초는 膻中에 있느니 안으로 심장에 응하고 중초는 中脘에 있으니 안으로 脾에 응하고 하초는 臍下에 있으니 즉 신간동기니 인신에 분포할 때 上, 中, 下의 차이가 있다. 바야흐로 사람이 마음이 맑고 고요하여 욕심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精氣가 삼초에 있어서 百脈을 榮華롭게 하고 생각이 한번 일어나 욕망의 불이 타오르면 삼초 精氣를 모아 흘러 넘치게 해서 명문으로 보내 쏟아버린다. 그러므로 이 府가 三焦가 된다고 부른 것이다. 학자들이 깨닫지 못하니 긴 한숨이 나온다. (古人이 謂左腎爲腎臟이니 其膀胱이오 右腎爲命門이니 其腑三焦라하니라. 三焦者는 有脂膜如手大니 正與膀胱相對하고 有二白脈이 自中出하여 夾脊而上貫于腦라 所以經云丈夫藏精하고 女子繫胞라하니라. 以理推之컨대 三焦當如上說이면 有形可見이 爲是라. 扁鵲乃云三焦有位無形이라 하니 其意는 以爲上中二焦는 如漚如霧하고 下焦如瀆 하니 不可遍見이라 故曰有位無形이어늘 而王叔和輩가 失其旨意하여 遽云無狀空有名이라하여 俾后輩承謬不已라 且名以名實이니 無實奚名고 果其無形이면 尙何以藏精繫胞爲哉리오. 其所謂三焦者는 何也오

上焦者는 在膻中하니 內應心하고 中焦는 在中脘하니 內應脾하고 下焦는 在臍下하니 卽腎間動氣니 分布人身에 有上中下之異라 方人湛寂하야 欲想不興이면 則精氣散在三焦하야 榮華百脈하고 及其想念一起하야 慾火熾然하면 翕撮三焦精氣流溢하야 并命門輸瀉而去라 故로 號此府爲三焦耳라 學者不悟하니 可爲長太息이로다)4)

이 내용은 복속 때 三焦有形說을 주장한 單驥과 徐遁 두 사람의 의견에 자기의 생각을 합해서 기록한 것이다. 筆者의 입장에 볼 때 徐遁은 右腎下의 脂膜이 삼초라는 주장을 했고 單驥은 三焦가 인체의 上中下에 각기 分布한다고 만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기능적으로도 精氣가 三焦에 흩어져 있다가 慾情이 動하면 이 精氣를 命門으로 보내 瀉出한다고 하여 內經 및 難經에서 말한 主持諸氣 通調水道의 기능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또 右腎下脂膜說은 上中下에 각기 분포하고 기능이 각기 다른 三焦의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후대 대부분의 醫家들로부터 부정당하였다. 그러나 張錫純은 “陳無擇이 말한 三焦는 臍下脂膜이니 이는 網油가 삼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다만 그가 말한 臍下의 脂膜은 오직 下焦가 되는 것일 뿐이다.”5) 라고 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사료된다. 송대의 三焦有形說은 삼초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후 三焦有形에 관한 論爭을 유발한 중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 2) 三焦有形說의 發展期 明代

明代에 三焦有形說을 주장한 醫家로는 虞搏, 俞弁, 章潢, 張介賓 등이 있다. 이 중 俞弁은 “이른바 形이라는 것은 장부 외에 별도로 한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장부자체를 지적해서 형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所謂形者는 非謂臟腑外에 別生一物이오 不過指其所而爲形耳라)6)고 하여 별다른 의의가 없고

章潢은 蘇黃門의 《龍川志》의 내용을 그래도 베껴 놓아서 역시 의미가 없다. 虞搏은 人身에는 相火가 있어 腔子の 안을 游行하고 盲膜의 사이를 오르내리는데 이 腔子를 삼초라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초는 腔子를 가르켜 말한것이니 腸胃를 包函한 總司이다. 胸中 膈膜의 위를 삼초라 하고 膈膜의 아래 배꼽 위를 중초라 하고 배꼽 아래를 하초라 하고 총칭하여 삼초라 하니 답는 바가 없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그 본체는 脂膜이 腔子안에 있어서 옥장오부를 밖에서 싸고 있는 것이다. (三焦者는 指腔子而言이니 包函乎腸胃之總司也라 胸中 盲膜之上을 曰上焦오 盲膜之下와 臍之上을 曰中焦오 臍之下를 曰下焦오 總名曰三焦니 其可謂之無攸受乎아 其體는 有脂膜在 腔子之內하야 包羅乎六臟五腑之外也라)7)

虞搏의 주장은 上中下焦를 나눈 것도 합리적이고 오장육부를 밖에서 腔子안에 있는 脂膜이 싸고 있고 腔子안은 相火가 游行한다고 하였는데 오장육부 전체를 하나로 싸고 있다는 것인지 하나하나를 싸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삼초가 장부를 싸고 있다고 한 것은 본질에 접근하는 대단한 卓見이라고 사료된다.

장개빈은 三焦는 三才의 象이 있어 際上極下 해야하고 焦는 火의 象이 있어 色赤屬陽해야하며 《靈樞》「五癰津液別論」의 “三焦出氣하야 以溫分肉 하야 充皮膚” 하는 기능이 있어야하고 「背腧篇」의 “肺俞는 在三焦之間하고 心俞는 在五焦之間...” 등의 焦字는 軀體를 焦라 한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肌肉之內와 藏府之外에 있으면서 모든 臟腑를 둘러싸고 있는 큰 주머니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십이장 가운데 오직 삼초만이 홀로 크니 다른 장은 여기에 필적할 것이 없다. 그래서 孤之腑라 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腑라 한것이오 삼초를 中瀆之腑 是孤之腑라 한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의 腑가 있는 것이니 대개 장부의 밖과 몸체의 안에 모든 장부를 싸고 있는 주머니와 같은 큰 腑이다. (然于十二臟之中에 惟三焦獨大하니 諸臟無與匹者라 故名曰是孤之腑也라……其皆有盛貯하야 因名爲腑오

4)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98.  
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196.  
6) 楊扶國, 齊南主編, 中醫藏象與臨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1. P132.

7) 虞搏,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P70.

而三焦者曰中瀆之腑 是孤之腑는 分明確有一腑니 蓋卽臟腑之外 軀體之內에 包羅諸臟 一腔之大腑也라)8)

장개빈의 이 주장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내경과 난경에서 말한 三焦者는 決瀆之官이니 水道出焉이니라”, “三焦開發 宣五穀味”, “中焦의 腐熟水穀과 蒸化精微”, “下焦의 排泄二便” 하는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不足한 점이 많다.

### 3) 三焦有形說의 成熟期 清代

清代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하게 三焦有形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羅美는 《內經博議》에서 三焦는 上焦, 中焦, 下焦의 合稱으로 그 部位는 단지 胃脘에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삼초는 다만 胃部上下의 匡廓이 삼초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으니 모두 양명 胃의 장소이다. 삼초가 주장하는 바는 양명 胃가 베푸는 것이다…… 上焦가 안개와 같다 하는 것은 양명 胃가 물건을 소화시켜 기를 상승시키는 것을 형상한 것이고 중초가 거품과 같다 한 것은 물건을 소화시킬 때 넘치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요 하초가 도랑과 같다 한 것은 찌꺼기를 걸러 나누어 물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초라고 이름한 것은 단지 두 개의 陽이 밝음을 합하여 胃가 되는 것이니 상화의 직책으로 그것을 말했을 따름이다. (故知三焦者는 特胃部上下之匡廓이 三焦之地니 皆陽明胃之地라 三焦之所主는 卽陽明胃之所施라…… 焦如霧者는 狀陽明化物之升氣也오 中焦如漚者는 狀化時沃溢之象也오 下焦如瀆者는 狀濟泌分別流水之象也라 是以로 名爲三焦者는 特爲兩陽合明之胃니 與相火之所職으로 言之耳라)9)

이 說은 三焦가 原氣之別使가 되고 溫分肉하며 充皮膚한다는 생리기능을 설명할 수 없으며 分明하게 區分되는 三焦의 위치를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 별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內經 이후 三焦의 본질을 해부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여겨지는 葉霖의

《難經正義》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葉霖은 《難經》 38難의 三焦가 外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주석에서 “外府는 謂在諸藏府之外也라”하였고 39難에서는 “手少陽三焦는 乃腔內脂膜이니 爲藏府之郭郭이라” 하였으며 66難에서는 “三焦는 乃腹包膜이니 其連網脂膜이 皆三焦之物이니 爲統攝藏府之郭郭也라”고 하였다. 郭郭이란 성의 외곽이란 뜻으로 장부를 밖에서 싸고 있다는 뜻이다. 그의 三焦有形에 대한 25難의 주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경에서 소양을 腎에 속한다고 말한 것은 소양 삼초가 腎中의 명문에 속한다는 것이다. 명문은 바로 腎系니 腎系로부터 내려가서 脂膜을 생낸 것이 삼초의 근원이 된다. 서의들의 이른바 배를 싸고 있는 막이니 腹內府의 統膜이 이것이다. 그 막의 근원은 腎系의 아래에서 방광을 싸는 것이니 兩腎을 통해서 대소장 및 여자의 자궁을 싣다. 核을 지나서는 되돌아 와서 콩무늬뼈의 뒤로부터 위로 올라간다. 腹壁의 膜은 앞에서 간의 위쪽에 이르고 격막의 아래에서 되돌아서 腹前을 향해가서 간과 위를 싣다. 윗층은 격막의 아래층과 끈적끈적하게 이어진다. 격막의 상층은 심포락의 하층과 서로 연결된다. 氣脉이 간의 아래와 위의 위쪽에서 관통한다. 또 薄膜 한층을 옆으로 내서 간과 위를 격리시키니 즉 肝胃連膜이다. 心肺는 이 막의 위에 있으니 싣 수가 없다. 싣고 있는 각각의 장부는 肚腹의 앞에 하나의 빈주머니를 이루니 간위 연막으로부터 뒤에 하나의 구멍이 있어 서로 통해 빈주머니를 뚫고 들어가니 空竅라고 부른다. 격막아래 각 장부의 사이에 모두 이 막이 여러층으로 중첩된 힘줄이 있는데 장부를 묶어 그 부위를 고정시키고 아울러 各處의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여 운행케 한다. 또 얇은 막을 가지처럼 내어 그물처럼 종횡으로 벌려 놓으니 이것은 저 藏이 이 藏에 行하여 氣血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무릇 모든 連網과 膜油는 모두 삼초인 것이다. (經言少陽屬腎者는 屬於腎中命門也라 命門卽腎系니 由腎系下生脂膜이 爲三焦之根이라 西醫所謂腹包膜이니 腹內府統膜者가 是也라 其膜之原은 腎系之下裏膀胱이니 通兩腎하야 包二腸及女子子宮이라 經核反折回하야 由尻骨之後上行이라 腹壁膜은 前至肝之上하고 膈膜之下는 轉向腹前하야 包肝裏胃라

8)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35.

9) 裴吉生, 珍本醫書集成①, 서울, 도서출판 醫聖堂, 1994. P65.

上層은 與膈膜之下層으로 黏續이라 膈之上層은 與心包絡之下層으로 相聯이라 氣脈通貫於肝之下 胃之上이라 又橫出薄膜一層하야 以隔肝胃하니 卽肝胃連膜也라 心肺는 在此膜之上하니 不能包裹라 所包各藏府는 肚腹之前에 成一空囊하니 由肝胃連膜으로 後有一孔相通하야 透入空囊하니 名曰空竅라 凡膈膜以下各藏府之間에 俱有此膜數層之折疊筋帶하니 爲縮其藏府하야 以定其部位하고 并護行各處之血管腦筋이라 又枝生薄膜하야 網羅縱橫하니 是有彼藏行於此藏하야 以通氣血者也라 凡諸連網膜油는 皆三焦之物也라”<sup>10)</sup>

葉霖은 揚州人 으로 그가 《難經正義》를 쓴 시기는 1895년으로 그는 서양의학의 해부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이 註釋을 단 것이다.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大綱이 북막에서 나와 횡격막 아래의 여러 장기를 싸고 있고 小綱이 간과 위를 나누고 網囊이 있는 것까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大綱, 小綱을 三焦로 보는 筆者의 견해와 一致한다.

唐宗海는 《血證論》의 臟腑病機論에서 “三焦는 古作膈니 卽人身上下內外相聯之油膜也라”<sup>11)</sup>고 하였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양의사들의 이른바 連網은 바로 膈膜이니 세속에서 이른바 網油와 몸 주위의 膜이 모두 이것이다. 網油는 膀胱에 연결되어 붙어서 물이 이로 인하여 網油中으로부터 膀胱으로 스며들어가니 내경에서 ‘三焦者는 決瀆之官이니 水道出焉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 삼초의 근원은 腎中에서 나오고 兩腎의 사이에 한 줄기 油膜이 있어 脊骨을 관통하니 命門이라 하니 이것이 삼초의 근원이다. 이 다발로부터 板油를 발생하여 胸前之膈으로 연결되 胸中으로 쫓아 올라가 심포락으로 들어가 肺系와 연결되어 목구멍으로 올라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손, 등, 가슴 앞의 주리가 되니 이것이 삼초이다. 板油로부터 鷄冠油로 연결되어 小腸에 붙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腰腹 주리가 되니 이것이 중초이다. 板油로부터 網油로 연결되어 뒤로 대장과 연결되고 앞으로 방광과 연결되며 가운데서는 자궁이 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엉덩이, 다리, 아랫배의 주리가 되니 이것이 하초이다. 사람이 마신 물이 삼초로부터

방광으로 내려가면 소변으로 나가는 것이 시원하고 만약 삼초가 不利하면 물길이 막혀서 밖으로 腫脹이 생긴다. (西醫所謂連網은 卽是膈膜이니 及俗所謂網油와 并周身之膜이 皆是也라 網油連著膀胱하야 水因得從網油中滲入膀胱하니 卽古所名‘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이 是矣라 三焦之根은 出于腎中하고 兩腎之間에 有油膜一條하야 貫與脊骨하니 名曰命門이니 是爲焦原이라 從此系發生板油하야 連胸前之膈하야 以上循胸中하야 入心包絡하야 連肺系上咽하고 其外出은 爲手背胸前之腠理니 是爲上焦오 從板油로 連及鷄冠油하야 著于小腸하고 其外出은 爲腰腹之腠理니 是爲中焦오 從板油로 連及網油하야 后連大腸하며 前連膀胱하며 中爲胞室하고 其外出은 爲腎脛少腹之腠理니 是爲下焦라 人飲之水가 由三焦而下膀胱 則決瀆通快오 如三焦不利면 則水道閉하야 外爲腫脹矣라”<sup>12)</sup>

“焦는 옛날에 膈라 하였으니 人身 안팎의 網膜이다. 그 근본은 腎中에서 생하니 곧 腎系이다. 腎系로부터 옆구리 안의 板油를 만들어 내고 또 板油로부터 網油를 생하여 장과 위, 방광에 연결된다. 下焦 油網中의 夾室은 精室이 된다. 血海는 앞으로 臍와 연결되고 뒤로 脊椎와 연결되며 胸前으로 따라 올라가 大膈이 되어 뒤로 肝에 연결되고 腔子를 따라 올라가 肺系에 이르러 심장에 이르러 包絡이 되고 또 咽喉로 올라간다. 그 全身으로 뚫고 나가서는 肌肉을 싸고 筋과 연결되니 皮毛를 벗기면 白膜이 드러나는 것은 모두 이것이 三焦의 腠理이다. 모든 藏府, 肢體, 內외의 氣血이 交通하는 길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그 막에 文理가 있기 때문에 주리라고 한다. 단지 이것만을 알고 있으면 곧 病의 道路를 완전히 알수가 있다.(焦古作膈하니 乃人身內外之網膜이라 其根은 生于腎中하니 卽腎系也라 由腎系로 生出膈內之板油하고 又由板油로 生出網油하야 聯于腸胃膀胱이라 其下焦網油中之夾室은 是爲精室이라 血海는 前連臍하고 后連脊하며 上循胸前爲大膈하야 后連于肝하고 上循腔子하야 至肺系하야 抵心爲包絡하고 又上于咽喉라 其周身透出하야 包肉連筋하니 剝去皮毛에 卽見白膜者는 皆是三焦之腠理也라 凡藏府肢體內外의 氣血交通之路가 皆在乎此

10) 葉霖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45.  
11) 唐宗海,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P11.

12)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P22.

하니 以其膜有文理라 故曰腠理라 但明乎此則病之路道全知矣라”<sup>13)</sup>

唐宗海는 三焦의 焦는 膈로 油膜으로서 몸 안에서는 오장육부를 연결하고 밖에서는 周身之膜이 되어 腠理가 된다고 하였는데 삼초가 하나이면서도 上焦, 中焦, 下焦로 나누어져서 作用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三焦가 主持諸氣하며 原氣之別使가 되며 通調水道하는 기능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주장이다.

다만 그는 三焦의 水道로서의 기능과 行水作用을 설명하기 위해 “腎主水而行水之腑는 實爲三焦라 三焦는 卽人身膜油로 連腸胃及膀胱이라 食入于胃에 由腸而下하고 飲水入胃면 則胃之四面에 均有微管하야 將水吸出하야 散走膈膜하니 此膜이 卽三焦也라 水由上焦로 歷肝膈하고 透腎系하야 入下焦油膜하야 以達膀胱이라 故三焦者는 中瀆之腑니 水道出焉이라하니라”<sup>14)</sup> 하였다. 이는 《靈樞》「營衛生會篇」의 “濟泌別汁하야 循下焦而滲入膀胱焉이라.”는 구절에 집착하여 마신물이 위로 들어간 후 胃 주위의 膈膜으로 흩어지고 膀胱주위의 油膜에 이르러 방광으로 滲入되어 들어간다고 한 것으로 소변을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생리상황과 부합되지 않아 후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唐宗海는 1884년 『血證論』을 撰하고 1892년 『中西匯通醫經精義』를 撰하여 葉霖보다 시대가 앞서므로 內經 이후로 삼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의가라고 사료된다.

#### 4) 三焦有形說의 深化期 民國時代

民國時代에 이르러 章太炎은 三焦를 淋巴系統으로 보았지만 타당성이 결여된다. 張錫純은 三焦는 곧 網油이고 그 根蒂는 命門과 연결되어 있다는 唐宗海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널리 보충 설명을 하였는데 이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內經》「論勇篇」에서 勇士는 삼초의 文理가 橫으로 되어있고 怯士는 삼초의 文理가 縱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삼초의 文理를 이미 명명백백하게 橫縱으로 구별할수 있다면 그 文理가 크고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몸 안에서 文理가 크고 현저한 것은 網油와 같은 것이 없다. 이것이 삼초가 網油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內經》「脹論篇」에서 “三焦脹者는 氣滿于皮膚中 하니 輕輕然而不堅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皮膚中이라는 것은 腠理의 膜이다. 人身의 膜原은 안과 밖이 중횡으로 서로 관통되어 있으며 網油는 膜중에서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網油에 脹病이 있으면 밖으로 腠理에 도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삼초가 網油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內經》「本藏篇」에서 “密理厚皮者는 三焦膀胱이 厚하고 粗理薄皮者는 三焦膀胱이 薄하고....”라고 하였다. 삼초를 이미 厚薄, 緩急, 直結하다고 구별할 수 있으면 실제로 그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厚薄, 緩急, 直結을 모두 방광과 함께 論했으니 삼초 또한 방광처럼 膜으로써 본질을 삼고 또 방광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膜으로써 본질을 삼고 방광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곧 網油이다. 이것이 또 三焦가 網油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扁鵲이 이르기를 腎間動氣는 三焦之原이 된다고 하였다. 신간동기가 있는 곳은 곧 相火이다. 網油는 三焦가 되고 그 根蒂는 命門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속의 動氣는 三焦之原이 된다고 할 수 있다.

陳無擇이 말한 三焦는 臍下脂膜인데 이것도 網油가 삼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단지 그가 말한 臍下脂膜은 오직 下焦가 될 따름이다. 이로 보건대 脾를 싸고 胃에 絡하고 있는 脂膜은 中焦가 되고 心下脂膜 및 心肺를 連絡하는 脂膜은 上焦가 됨을 추측할 수 있다.<sup>15)</sup>

張錫純은 三焦가 網油라는 증명을 하면서 人身의 膜이 안 과 밖이 중횡으로 연결되어 網油之膜이 피부의 腠理之膜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고 또 下焦는 臍下脂膜이고 中焦는 包脾絡胃之脂膜이고 上焦는 心下の 膻中膜과 連絡心肺之脂膜이라고 하여 삼초의 본질에 접근하는 說明을 하고 있다.

13)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P373.

14)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P20.

1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195~196.

### Ⅲ. 考 察

황제내경에서 말한 오장과 육부는 모두 일정한 부위가 있고 상응하는 經脈이 있으며 表裡관계도 있고 생리적인 기능, 病理의인 病證, 그리고 外部에 相應하는 組織이 있는데 內經中の 三焦는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靈樞》「經脈」에서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下膈 歷絡三焦” “三焦手少陽之脈...散絡心包 下膈 循屬三焦”라 하였으니 이 원문을 살펴보면 三焦의 部位는 膈下의 腹腔이 된다. 手少陽三焦經이 양쪽 無名指 끝 關衝穴에서 起하여 尺側을 따라 上行하다가 上肩 入缺盆하여 布膈中하여 散絡心包하고 下膈하여 循屬三焦하고 支脈이 膈中으로부터 올라가 出缺盆하여 目銳眥에 이르러 足少陽膽經과 交하고 手厥陰心包經과 表裡關係를 이루니 三焦는 상응하는 經맥이 있고 다른 장부처럼 表裡關係도 있는 것이다. 또 《素問》「靈蘭秘典論」에서 “三焦者是 決瀆之官이니 水道出焉이라”하고 《靈樞》「本腧」에서 “三焦者是 中瀆之府也니 水道出焉이라” 하였으니 삼초의 기능은 水液을 運行하는 道路가 된다고 생리적인 기능을 밝히고 있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三焦病을 말하고, 「經脈」에서 三焦手少陽之脈의 是動病과 所生病을 언급했으며 「脹論」에서 “三焦脹者是 氣滿于皮膚中하여 輕輕然而不堅이라”하여 病證을 말하고 《靈樞》「本藏」에서 “三焦膀胱者是 腠理毫毛其應이라”하여 三焦의 外應하는 組織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內經에서 말한 三焦는 다른 오장육부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形體가 있는 것이다.

이후 難經 25難과 38難에서 “有名而無形”이라한 이후 《傷寒》《金匱要略》에서도 三焦의 形象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아니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醫家들로 하여금 三焦無形說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장경약은 내경에 있는 有形의 증거를 두루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難經이란 책은 內經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發明한 것이기 때문에 難經이라 한 것이니 실상 난경은 내경에서 나온 것이다. 내경에서는 그 명칭과 형상을 상세히 설명했고 난경에서는 무형이라고 말했는데 난경의 무형설을 따를 것인가 내경의 유형설을 따를

것인가” 우리들은 당연히 내경의 有形을 따라야 할 것이다.

有形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먼저 삼초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歷代로 三焦에 대한 論爭의 焦點은 형태의 有無에 있었지만 三焦의 생리기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일치하였다. 내경과 난경에 있는 삼초의 주요 생리기능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첫째 主持諸氣하여 全身의 氣機와 氣化를 주관하며 氣의 通路가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通調水道하여 水液運行的 道路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上焦 中焦 下焦가 하나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세부적으로 나뉘어 上焦는 精氣를 全身으로 宣布하고, 中焦는 水穀을 腐熟하고 精微之氣를 蒸化하여 氣血津液을 化生시키고, 下焦는 清濁을 分別하고 大小便을 排泄하는 作用을 한다는 것이다. 有形의 三焦는 이러한 기능을 모두 充足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筆者의 견해를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는 해부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체의 모든 구조가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오장오부를 제외하고 횡격막아래의 腹腔에 있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막에서 나와 하나하나 대소의 장기를 싸고있는 大綱과 小綱이다. 이것이 내경에서 말한 주된 삼초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上焦의 기능을 설명하려면 횡격막을 포함한 심장을 싸고 있는 心囊(즉 心包)과 폐를 싸고 있는 흉막까지가 삼초에 포함된다. 그리고 난경에서 말한 “三焦者是 原氣之別使也라”와 십이경맥에서 三焦之氣가 所行하고 있는 原穴까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筋膜을 포함한 인체에 있는 모든 막이 三焦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난경 38難에서 三焦를 外府라 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역대 삼초 유형설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陳無擇의 방광과 마주하고 있는 右腎下脂膜說은 大綱이 膀胱까지를 싸고 있으므로 이를 下焦로 본 張錫純의 의견에 동의 할 수 있으며 三焦有形說을 처음으로 주장한 功勞가 있다. 虞搏의 오장육부를 밖에서 싸고 있는 腔子脂膜說은 문장만 보아서는 오장육부를 장개빈의 說처럼 밖에서 하나로 싸고 있다는 것인지 하나하나를 싸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삼초의 실체에 접근하는

대단히 훌륭한 견해라 사료된다. 장개빈의 장부의 밖, 몸체의 안에서 큰 주머니처럼 생겨 上下全体를 한꺼번에 싸고있는 包羅諸藏大囊說은 大綱 小綱이 장부를 하나하나 싸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장부를 싸고 있다는 개념만은 취할 점이 있다. 葉霖의 《難經正義》에 있는 腹包膜說 및 藏府郭說은 지금 해부학에서 말하는 大綱과 小綱을 설명한 것으로 內經 이후 三焦의 실체를 해부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지적했던 사람이라 사료된다. 唐宗海의 人身內外網膜說도 三焦의 實體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는 內部の 膜은 膽로 油膜 또는 網膜을 가리키는데 大綱, 小綱을 포괄하고 있고 外部의 膜은 周身之膜을 가리키는데 周身之膜인 白膜者는 皆是三焦之膜理也라고 하여 三焦의 개념을 體表의 膜까지 확장하였다. 또 板油가 위로 올라가 心包絡으로 들어가고 肺系와도 연결된다고 하여 上中下三焦가 部位를 달리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뛰어난 관점을 드러내었다. 다만 그가 무리하게 小便이 만들어 지는 기전을 설명하면서 “水至小腸下口하여 乃滲漏入膀胱은 非也라” 하고 “水因得從網油中滲入膀胱이라”하여 후세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三焦에 대한 견해는 한의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 할 것이다.

民國시대에 이르러 張錫純은 唐宗海의 油膜說을 계승하여 內經에서 말한 三焦가 網油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또 內外網膜說과 三焦部位說도 보충 설명하였는데 모든 論說이 타당하다.

#### IV. 結 論

三焦有形說에 대한 研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難經에서 三焦는 有名而無形이라 하여 三焦無形說이 한의학계의 대세를 이루어 왔지만 難經의 뿌리가 되는 內經에서 말한 三焦의 의미를 고찰해 보면 三焦는 일정한 部位가 있고 經脈이 있으며 表裡關係도 있고 생리적인 기능, 병리적인 病證 그리고 외부에 相應하는 組織이 있어 기타의 오장육부와 동일함으로 三焦는 有形으로 보아야 한다.
2. 有形의 삼초는 주요 생리기능인 主持諸氣와 通調水道 그리고 상초의 宣布精氣, 중초의 腐熟水穀과 化生氣血津液, 하초의 分別清濁과 排泄二便의 기능을 모두 充足시켜야 하는데 협의의 삼초는 腹膜과 여기에서 나와 腹腔의 藏器를 싸고 있는 大綱, 小綱이 해당되고 광의의 三焦는 心囊, 胸膜, 그리고 筋膜을 포함한 인체의 모든 막 까지를 포괄한다.
3. 宋代의 陳無擇은 三焦를 右腎下脂膜이라 하였는데 이는 下焦만을 언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三焦有形說을 처음으로 主創한 공로가 있다.
4. 明代 虞搏의 腔子脂膜說은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 모호한 점이 있지만 삼초의 실체에 접근하게 하는 중요 계기를 이루었다.
5. 清代 葉霖의 腹包膜說 및 藏府郭說은 현대 해부학의 腹膜과 大綱, 小綱을 설명한 것으로 內經 이후 三焦의 실체를 해부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라 사료된다.
6. 清代 唐宗海가 주장한 人身內外脂膜說은 삼초의 실체뿐만 아니라 생리기능 특히 上中下三焦가 部位를 달리 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삼초의 실체와 생리를 이해하게 하는데 가장 뛰어난 공헌을 하였다.
7. 民國時代의 張錫純은 唐宗海의 說을 보충 설명하고 증명하였는데 論說이 타당하다.
8. 이를 통해 볼 때 三焦는 內經에서 말한 有形說이 難經의 無形說에 의해 진실이 감추어 졌다가 宋代의 萌芽期, 明代의 發展期, 清代의 成熟期, 民國의 深化期를 거치면서 그 본래 면목을 드러내었다고 사료된다. 이 중 葉霖, 唐宗海, 張錫純의 견해가 정확하다고 사료되며 이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보아 三焦에 대한 創見을 한 唐宗海의 업적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된다.

## 參考文獻

1. 裘吉生, 珍本醫書集成①, 서울, 도서출판 醫聖堂, 1994.
2.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9.
3. 唐宗海,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4.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5. 楊扶國, 齊南主編, 中醫藏象與臨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1.
6. 虞搏,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7.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8.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9.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10.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1.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